

**공동체 소식**



##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



**10월 기도지향**

-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가정
- 김병철 베네딕토, 김경희 스콜라스티카 가정

☞ 교황님 기도 지향 : 주님께서 전쟁과 폭력에 시달리는 지역들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주기도 성월**

교회는 해마다 시월을 ‘목주기도 성월’로 지냅니다. 목주기도를 자주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목주기도 성월’을 제정하시며,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자주 바치자고 권고하였습니다.

**공동체 설정 기념일(10/22)**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 1980년 3월 Kansas City, Missouri 교구청의 승인을 얻어 첫 미사를 St. Elizabeth 성당에서 봉헌하였습니다. 당시의 교우 수는 약 30여 명으로 지도신부는 메리놀회 Daniel Schneider 신부님이, 초대회장에 윤정희 예로니모 형제가 임명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22일, 제1대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청주교구)과 공동체 설정 20주년 미사 및 기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올해로 공동체 설정 34년을 맞이하며, 그동안 공동체를 위해 힘써 주신 주교님들, 역대 신부님들,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들의 노고를 기억합니다.

**새 주소록 발행**

<2015년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주소록>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각 구역장님들은 누락되는 교우 가정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총괄책임은 선교부에서 담당하겠습니다.

**사제관과 회관 DECK 철거**

지난 10/18(토) 오전 9시부터 철거작업을 하였습니다. 힘든 노동에 함께 해 주신 형제님들과 식사를 준비해 주신 구역회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네이션으로 힘을 실어 주신 김호원, 유길수, 이우석, 김정원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10/25(토) 오후 5시
- 장소 : 성 로렌스 성당

**기타**

- 10/19(일) 중심미사 후, 평협회의 있습니다.
- 전례분과에 정연숙 막달레나 자매님의 도네이션이 있었습니다.
- 교무금은 점심식사 전, 재무 위원들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50	213	180/192	39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수한 베드로	정예찬 미카엘
	문석찬 요셉	문예나 요안나
차주	안광민 야고보	김준영 요셉
	이우영 가브리엘	이원준 요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서정문 토마스 김민영 크리스티나

**애찬 봉사자**

금주	김시연, 신혜경, 조경희, 김말자
차주	백문주, 최은미, 배복선, 박정자

**헌금 봉사자**

금주	이우영 가브리엘, 박희영 카타리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아, 문석찬 요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0/12	85명	375불	1,130불
이우석, 김정원, 정준구, 차호섭, 이우영(총 5세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르코린 4.18-

2014년 10월 19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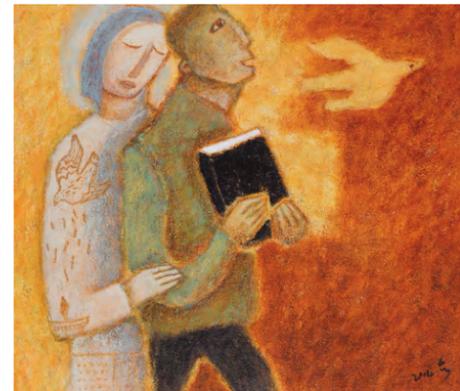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연중 제29주일인 오늘은 전교 주일로서 교회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 당의 복음화는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며, 그리스도인 모두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민족의 복음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삶의 모범과 말씀의 선포를 통해 복음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림 묵상**

**동행**

세상의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힘과 언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도 큰 기쁨과 평화를 간직하며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교주일을 맞아, 이웃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신앙의 기쁨으로 초대하는 선교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이사2,1-5 <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밀려들리라. >

**화 답 송 :** 

만 백 성 이 당 신 의 구 원 을 알 게 하 소 서

○ 하느님 저희를 어여뵈 여기소서. 저희에게 복을 내리옵소서.  
어지신 그 얼굴을 저희에게 돌이키소서. ◎

○ 정의로 뭇 백성을 다스리심을 이 세상 뭇 백성을 다스리심을  
창생들이 기뻐하야라. 춤추며 기뻐하야라. ◎

○ 오곡 백과가 땅에서 났으니 우리 주 하느님이 복을 주심이로다.  
하느님 저희에게 복을 주소서. 천하 만방이 당신을 두리게 하소서. ◎

**제 2 독서 :** 로마10,9-18

<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 음 :** 마태28,16-20 <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



###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의 전교 주일 담화 (요약)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적이고, 전교 주일은 선교지에 있는 신생 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대륙의 신자들이 기도하며 구체적인 연대 활동에 전념하는 탁월한 시기입니다.

제자들은 선포의 사명을 완수하고 기쁨에 가득 차 돌아왔습니다. 그 기쁨은 잊을 수 없는 첫 선교 경험의 으뜸 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권한을 두고 기뻐하지 말고 그들이 받은 사랑에 기뻐하라고 당부하셨으며(루카 10,20), 제자들은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였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시며”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깊은 기쁨의 순간은 예수님께서 성부의 아드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루카 10,21).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분의 내적 환희**를 드러내는 것이며 ‘선하신 뜻’은 아버지의 인류에 대한 자비로운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 하느님의 선하심을 두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성모님의 환희가 이와 비슷하다고 말하였는데(루카 1,46-47), 이 두 경우에서 기쁨은 구원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기쁨의 샘입니다. 이 기쁨을 아드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성령께서 그 기쁨에 생기를 복돋워줍니다.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줍니다.”(복음의 기쁨, 1항).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기쁨의 강물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온갖 극심한 소비주의와 더불어 개인주의적 불행입니다. 이는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립된 정신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복음의 기쁨, 2항). 이 때문에 더욱 인류는 그리스도께서 가져다주신 구원의 샘물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 더 사로잡히는 사람, 하느님 나라를 위한 열정에 불타는 사람이 되어 복음의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하십시오”(2코린 9,7). 개인의 금전적 기부는 먼저 주님을 향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이들을 향한 자기 봉헌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하여 물질적 봉헌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류의 복음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화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 복음의 기쁨 속에 잠겨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랑을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신 그 ‘첫 사랑’을 기억할 것을 당부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현존을 느낄 때,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다른 이들과 믿음과 희망과 복음적 사랑을 나눌 때에 기쁨 안에 머물게 됩니다.

교회가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는 복음화의 모범이신 마리아의 친구로 환대하는 집,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낳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제 1 편 하느님 공경

#### 제12장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루카 1,28-32).

#### 【주석】

**은총이 가득한 이여** : “은총이 가득한 이”(총애를 입은 이)가 마치 마리아의 이름처럼 쓰인다. 마리아가 ‘하느님에게서 총애를 입은 이’ 그 자체라는 뜻이다(주석 성경, 신약, 233).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구약 성경의 소명 이야기에 자주 나온다(상동). 모세가 주님의 소명을 받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탈출 3,12)라고 하느님은 말씀하신다.

**총애를 받았다** : ‘호감을 사다’ 곧 ‘눈에 들다’는 뜻이다(상동).

**예수라 하여라** : ‘예수’는 본디 ‘주님(=야훼)은 도움/구원’ 또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를 뜻하는 히브리 말 이름인 여호수아가 줄여서 된 예수아를 그리스 말로 음역한(예수스) 것이다(상동).

#### 【설명】

성모님은 왜 은총을 가득히 입으셨는가?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총이 가득한 이여’라고 인사했는데 이는 무슨 뜻인가? ‘은총이 가득한 이여’라는 말은 우리가 매일 바치는 성모송의 전반부 부분이 담긴 성경 말씀이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천사 가브리엘은 커다란 사명을 지니고 성모 마리아께 나타나 구세주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한다. 성모님은 매우 놀라워하면서도 그 인사말의 뜻을 곰곰이 숙고한다. 그리고 루카 1,38에서처럼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고백한다.

#### 【교회의 가르침】

▶ 하느님께서 하와의 후손 가운데 동정 마리아를 택하시어, 당신 아들의 어머니로 삼으셨다.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는 “구원의 뛰어난 열매”이다.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에서 완전하게 보호되고, 일생 동안 본죄에 물들지 않았다(가톨릭교회교리서, 508항).

#### 【어록】

▶ 우리의 완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과 일치하고 그분께 봉헌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심 중에서 가장 완전한 신심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르며, 그분과 일치하고 그분께 자신을 봉헌하는 신심이다. 그런데 모든 조물 가운데 마리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하게 일치하셨다. 따라서 모든 신심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수님께 가장 잘 봉헌하게 하고 친밀하게 일치시키는 신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대한 온전한 신심이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봉헌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도 봉헌하는 것이다(몽포르의 성 루도비코).